

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dark gray field filled with a complex network graph. It consists of numerous small, semi-transparent nodes (dots) in shades of purple, blue, and black, interconnected by a dense web of thin, light gray lines. The overall effect is a textured, interconnected pattern that suggests a large-scale network or data structure.

# 네트워크 그래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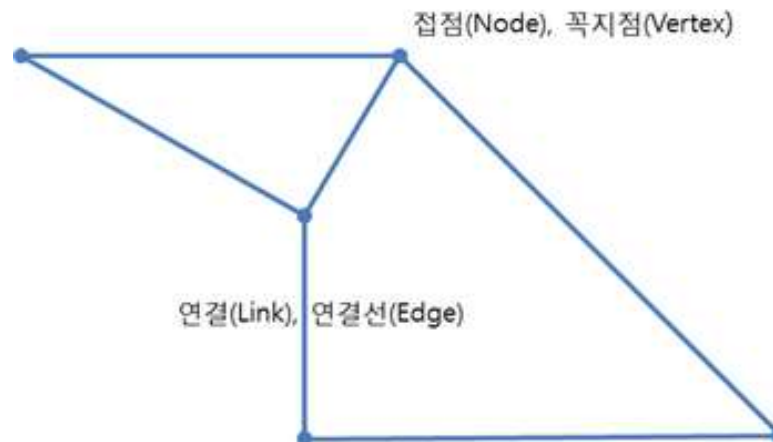
## Network Graph

---

# 네트워크 그래프 Network Graph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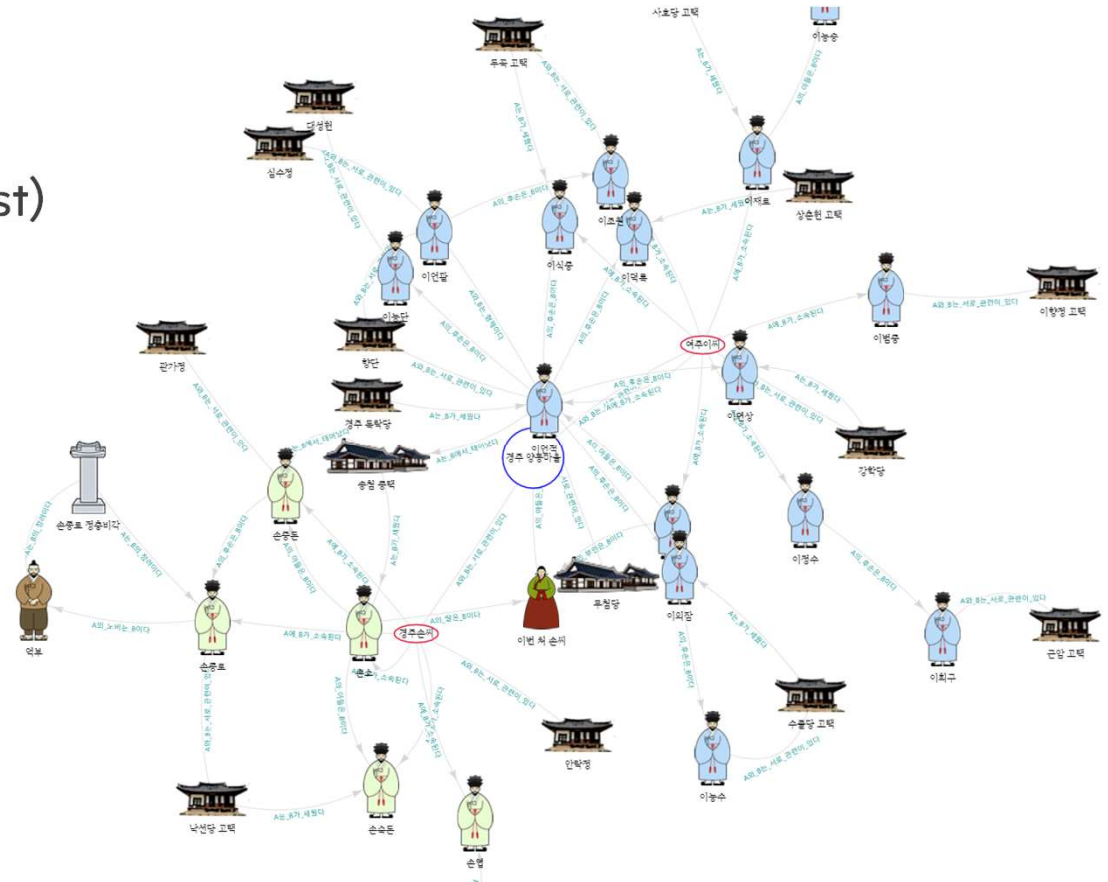
-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
- 지식정보, 이야기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(개체, node)와 그들 사이의 관계(link)를 점과 선으로 연결하는 것
-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 중 하나



# 네트워크 그래프 Network Grap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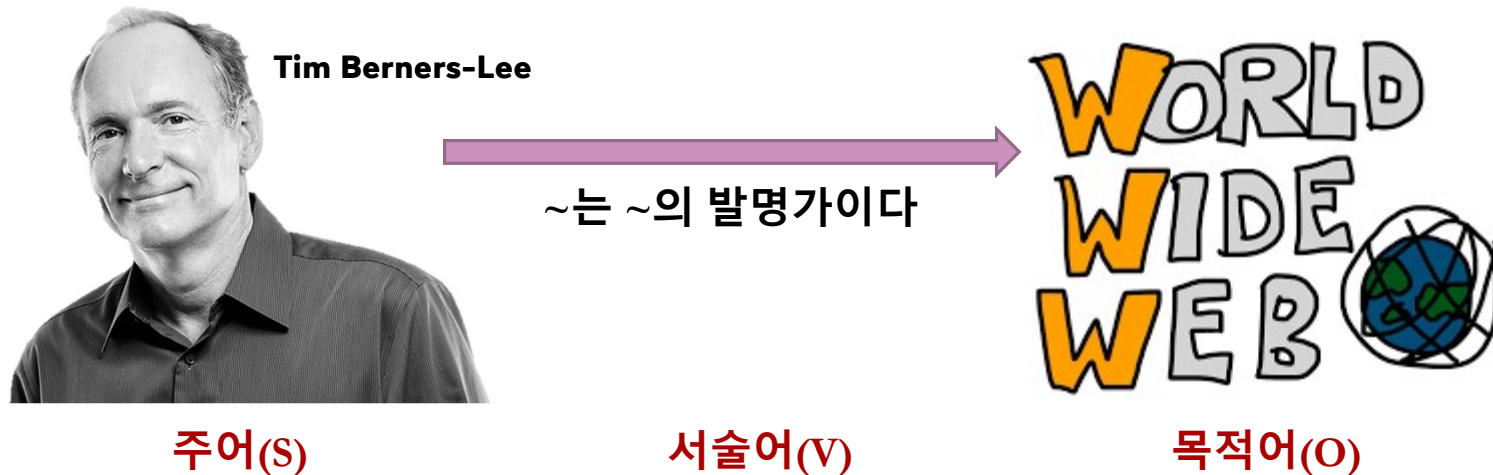
-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체와 그 개체들 사이의 관계가 일정한 형식의 데이터로 정리되어야 함.

- 1) 개체의 목록 (node list)
- 2) 관계성에 대한 목록 (link list)



# RDF (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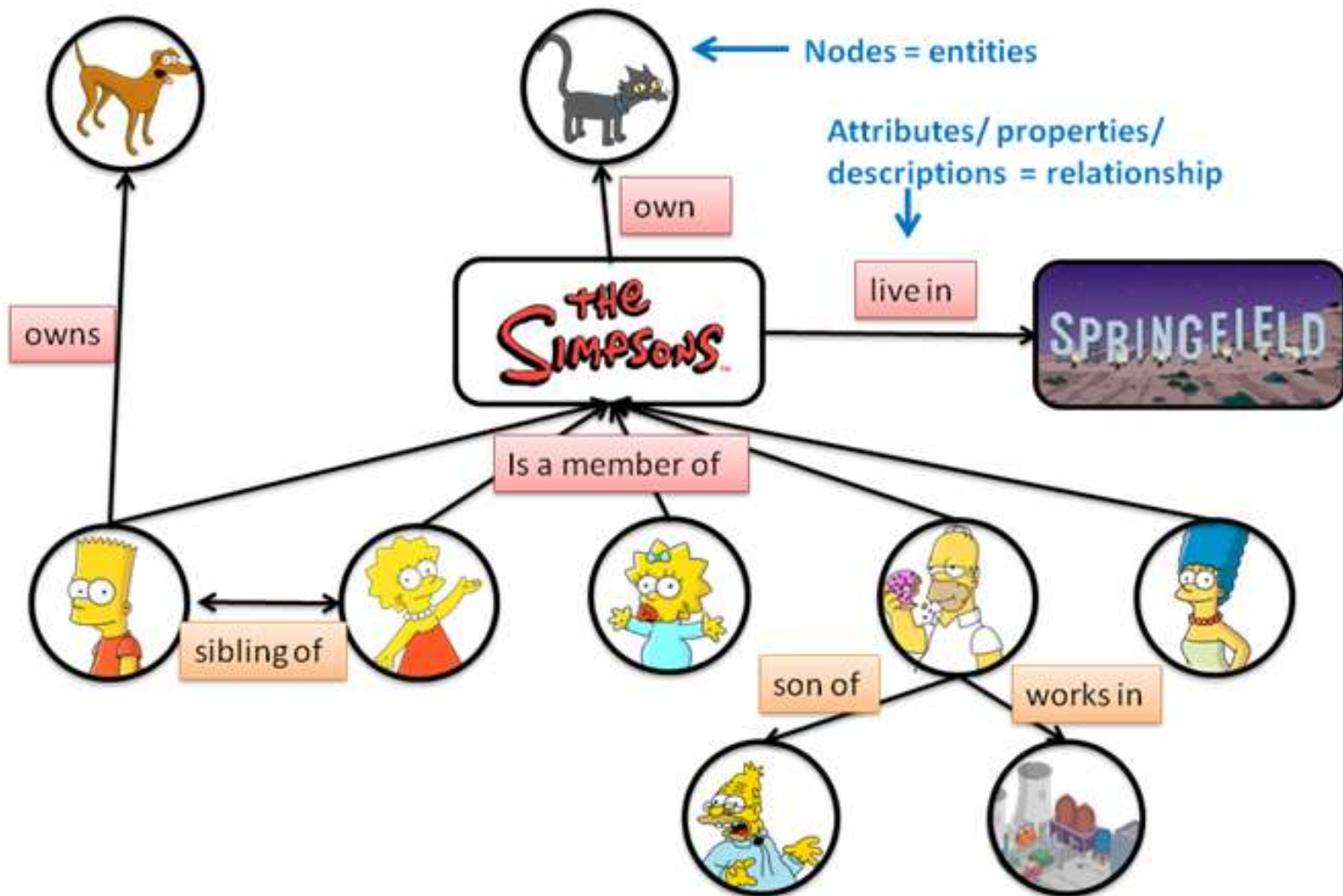
---



개체 사이의 관계성을 표시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, WWW의 세계에서는 RDF라고 불리는 형식이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다. 웹주소와 같은 명명법으로 개체에 식별자를 부여하고 두 개체 사이의 관계성을 약속된 서술어로 기술하는 방식이다.

# RDF (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)

---





# 데이터의 시각화 Data Visualization

---

- 인문지식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만은 아니다.
- 시각화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,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.

“개별적인 사실만을 바라볼 때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지만,  
그 사실들이 서로에 대해 맺고 있는 **관계들을** 드러내는 순간,  
그 관계와 관계의 연장은 **스토리가** 되고, 학술적인 **지식일** 뿐 아니라  
흥미로운 **이야깃거리의** 자원이 된다.”

김현, 「'관계의 발견'을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데이터 모델」,  
『2015년 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연구보고서』,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,  
2015, p.18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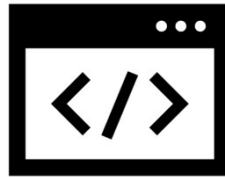
# 위키 문서로 네트워크 그래프 만들기

---

- [http://dh.aks.ac.kr/~classics/wiki/index.php/Network\\_Graph\\_in\\_Wiki](http://dh.aks.ac.kr/~classics/wiki/index.php/Network_Graph_in_Wiki)



lst 파일



위키 “틀” 문서



네트워크 그래프

- <http://dh.aks.ac.kr/~heritage/wiki/index.php/틀:문화유산정보>
- <http://dh.aks.ac.kr/~classics/wiki/index.php/틀:NetworkGraph>